

여수에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 들어선다

여수산단 인근 삼동지구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2025년까지 283억 투입

여수에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가 들어선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2022년부터 여수국가산단 인근 삼동지구 2만 349㎡ 부지에 화학 분야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R&D) 실증 조직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립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2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화학연구원의 전남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첫걸음인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 설치' 안전이 국가과학

기술연구회(NST)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전남도와 여수시, 한국화학연구원은 여수와 광양 산단을 탄소중립형 화학 기술 상용화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화학연구원 전남(여수)조직 설립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수에 들어설 탄소중립 화학공정 실증센터는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CCU실증 지원센터, 2개 센터로 구성된다. 연구인력 70여 명이 상주해 연구개발, 기업 실증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도는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 설치를 위해 올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정부 공모에 응모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83억원을 들여 석유화학 실증센터를 구축하는 '석유화학 고도화를 위한 실증규모의 촉매제조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또 2050 탄소중립 대응 및 기업 맞춤형 소재·공정 기술 개발, 기업지원 등을 수행할 '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됐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며, 총 28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은 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공정 개선, 탄소저감형 기술개발, 탄소중립형 신산업 전환 등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석유화학 실증센터'와 'CCU 실증센터' 구축을 통해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은 탄소중립형 화학 기술 및 산업수요 맞춤형 화학소재 실증·양산화 기

술 개발, 실증 지원 등을 추진,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센터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정부 탄소중립 연구개발 사업을 확보하는데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지역 기업, 기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및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남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탄소중립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한국화학연구원 전남조직 설립을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지원함과 동시에 전남이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공기업 경영평가 도시철도공사 최고 등급

광주 4개 지방 공기업 평가에서 도시철도공사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경영성과평가 이행 실적 평가에서 도시철도공사는 S등급, 도시공사·김대중컨벤션센터·환경공단은 A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는 S, A, B, C, F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지난해에는 모두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내년 2월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도시철도공사, 환경공단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임기 중 행정안전부 최고 등급(가)과 광주시 최고 등급(S)을 받으면 기관장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 때문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이번 평가에 따라 사장 연임이 가능해졌지만, 환경공단은 어렵게 됐다. 해당 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만간 연임 여부, 후임 공모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축 컨벤션센터 광주 랜드마크로

행안부 조사서 타당성 확보 2025년 준공 목표

광주시에 김대중 컨벤션센터 인근에 신축하는 제2컨벤션센터를 광주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하기로 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 계획'의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통상적인 기준(1)을 넘는 1.32로, 최근 행안부 타당성 조사 대상이었던 지자체 컨벤션 신설·중복 사업 중 최고 수준이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생산 유발효과 1465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33억원, 취업 유발효과 1382명으로 예측됐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제2컨벤션센터 건립 사업비는 총 1461억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연면적 4만6000㎡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 건축기획 심의를 거쳐 하반기 설계 공고를 하는 등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 황금박쥐부대에 위문금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국지도발, 대테러, 재난구조작전에 여념이 없는 담양 황금박쥐부대를 찾아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김환희 여단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용섭 시장 "평등산단은 소송, 첨단 3지구 사업 참여 맞지 않아" 현대엔지니어링 이중적 행태 우회적 비판

이용섭 광주시장의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검토 중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중적 행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7일 출입기자단과 차담회에서 "한쪽에서는 소송(평등준공업지역 개발)을 걸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첨단 3지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앞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광주 평등 준공업지역 개발 사업 공모에서 컨소시엄을 꾸려 한류 문화 콘텐츠

를 중심으로 개발 방안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광주시와 이견으로 지위가 취소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또 다른 사업인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공모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모했으며, 3800여 세대 아파트 대형 개발을 놓고 특히 논란이 제기돼 전문 기관이 업체 측의 계획안을 검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같은 현대계열인 현대산업개발은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최근 현대 관련 사고와 잡음이 잇따

르면서, 광주시민들 사이에 '반현대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시민여론을 감안한 듯 "소송을 취하고 안 하는 것은 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동일한 주체(광주시)가 하는 사업인데 이쪽에서는 소송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참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어등산, 평등, 첨단 3지구 등 개발 사업마다 업체와 갈등, 논란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광주시가 시행, 주관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고 법령, 규정, 원칙에 맞춰 광주 발전만 생각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들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인도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여 중기 10개사 신청 접수

전남도가 수출 중소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인도 시장개척 수출상담' 참가기업을 2022년 1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출상담은 오는 2022년 2월 14일부터 5일간 인도 뭄바이, 첸나이, 암다바드에서 현지 바이어와 1대1로 진행된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 2014년 경제규모 10위, 2019년 5위 국가로 부상한 신흥시장이다. 미·중 무역분쟁 및 코로나19발 글로벌 원자재 공급 차질로 어려운 중국을 대체할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11월 현재 인도는 한국의 제11위 교역 상대국으로, 한국에서 7순위로 수출하는 국가이며 지금도 꾸준히 수출액이 늘고 있다. 전남도는 전년도 수출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지역 중소기업 중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을 감안해 10개사 내외를 선정해 수출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이어 발굴, 통역 등을 지원받는다. 코트라 인도 무역관은 참가 기업의 제품 특성에 따라 바이어를 발굴해 수출상담을 주선하며, 상담 후 실제 수출이 이뤄지도록 바이어와의 서신 교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도 시장 진출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을 참고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양구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역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해외에 진출하도록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빙 • 승선문의: 061)834-3434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